Market Index / 17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3264.96	▼	1003.72	▲	72.15	▲	1USD		1149.77	1110.23	1EUR	1378.48	1324.70
-13.72		+5.23		+0.03		100￥		1040.00	1004.24	1CNY	184.42	166.86

빚으로 버티는 도내 자영업자 '수두룩'

제주신보, 특례보증Ⅱ 14~15일 이틀간 65건·17억 융자
작년 2~6월 특별보증 1654억원 중 상환율은 3.7% 그쳐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빚을 늘리는 자영업자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작년 상반기 소비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대의 저금리로 특별보증지원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융자금을 갚은 이들은 손꼽을 정도다.

17일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시작한 3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Ⅱ'를 통해 15일까지 이틀 동안 소상공인들에게 65건에 16억 9400만원을 융자지원했다. 건당 2600만원꼴로 융자받은 셈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와 신용등급을 생략하고, 대출금리와 보증수수료 우대 등 심사기준을 완화해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총 7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융자받으려는 이들이라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특별보증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융자금 상환 비율도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 2월 13일~6월 19일 사이에 제주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7196건에 1654억원을 융자지원했고, 올해 초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상환이 어렵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휴·폐업이나 신용불량자를 제외해 보증기간을 심사 없이 1년 연장했는데 현재 융자금 상환은 292건에 61억원으로 금액기준 상환율은 3.7%로 집계됐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특별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평균 3000만원 안팎을 융자받았는데, 1년 만에 갚기가 어려운 금액"이라며 "이번 특별보증을 받기 위해 재단을 찾는 이들 중엔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융자받으려는 이들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재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특별보증 규모는 2만1091건에 5148억원으로 2019년(1만1245건·2800억), 2018년(9901건·2440억) 대비 갑절 이상 증가했다.

문미숙기자

날개 단 제주수출… 품목별로는 희비

5월까지 8353만달러 전년동기 대비 41.8% ↑
생수 324% 증가·귤농축액 등 농산물은 부진

제주지역의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날개를 달았다. 품목별로는 생수 수출이 호조세인 반면에 농산물 수출은 바닥을 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가 17일 발표한 '제주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올들어 5월까지 수출액은 8353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수출액도 전년동월 대비 95.3% 증가한 1899만달러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수출은 지난 3월(1890만달러), 4월(1958만달러)에 이어 5월까지 연속 월중 최고 신기록을 이어가는 중이다.

5월까지 수출품목 1위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4266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2.4% 증가했다. 생수는 581만달러를 수출하며 324.5% 늘었고, 5월중 수출액이 235만달러로 월중 실적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넙치류는 5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58.5% 증가한 835만달러로 수출품목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5월까지 감귤농축액 수출이 126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8.2% 감소했고, 무와 양배추 수출 부진에 마늘과 백합은 수출실적이 전무했다.

5월까지 도내 수입액은 1억6037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4.9% 늘었다.

항공기 엔진이 2년 7개월만인 5월에 603만달러어치가 수입됐고, 대표적 면세점 소비재인 화장품류 수입액은 57.7% 증가한 2224만달러에 달했다. 스카치위스키는 1990만달러, 향수는 1050만달러어치가 수입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301.0%, 124.8% 늘었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우리 농산물 드시고 건강하세요"

새농민 제주도회, 꾸러미 전달
회원 직접 생산 보리쌀·버섯 등

제주지역 새농민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우리농산물 꾸러미가 도내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전달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와 (사)한국새농민 제주도회(회장 송용진)는 17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우리농산물 꾸러미 300상자를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종래)와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센터장 이은경)에 전달했다. >>사진

이번 농산물 꾸러미 전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로 상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꾸러미는 새농민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보리쌀, 감귤, 버섯 등으로 구성됐다.

송용진 새농민회 회장은 "회원과 우리 농민들이 정성껏 가꾼 농산물이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새농민회는 농협중앙회가 자립·과학·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선도농업인 중에서 선정·시상하는 새농민상을 받은 부부들의 모임이다. 한국새농민 제주도회는 1967년 첫 수상자 배출후 현재 175쌍의 부부농업인 수상자들이 도내 농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특별기획 기후변화의 시대, 농업의 길 (3)

기후변화, 위기를 넘어 기회로

경쟁력 있는 아열대과수 도입
안정생산 통해 신소득원 창출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열대·아열대 과일 선호가 높아지면서 매년 국내 소비량이 증가하고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소비량은 매년 3.6% 증가하고 수입 품목은 2000년 27종에서 2019년 38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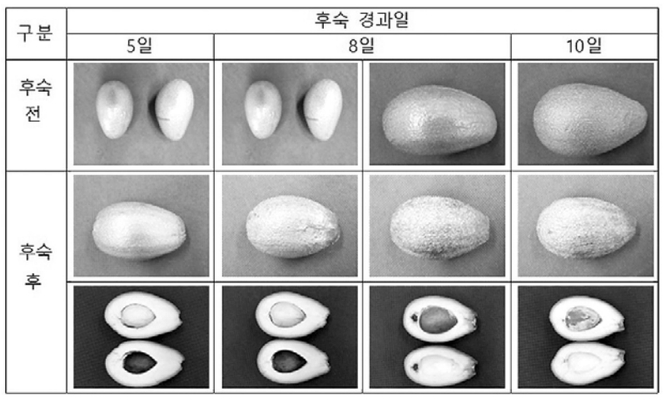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망고 등 아열대과수에 대한 연구와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품종별 나무생육 및 과실 특성을 조사해 무가온 재배 가능성을 검토해 적합 품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리브는 코로네키 등 11품종별 생육 및 과실 특성, 오일 성분 등을 조사해 노지재배에 적합한 오일용 올리브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와 아열대과수 정예소득작목 단지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백향과(2016년·함덕농협)·바나나(2018년·김녕농협)·용과(2019년·함덕농협)아열대과 정예소득작목(8.6ha)단지를 조성했다.



저온성 아보카도 무가온 재배 가능성 검토(후숙 시기별 수분감량).

제주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작목·품종을 육성·보급해 기후변화를 신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기후상 아열대과수 재배가 가능하나 겨울철 저온으로 인해 보조가온 재배를 하고 있어 난방비로 인한 경영비 부담이 크다.

아열대과수가 경쟁력을 갖추고 신소득 작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안정 결실, 소득 및 소비자 기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농기원은 제주지역 환경여건에 적합하고 가온없이 저비용으로 관리 가능한 작목을 선발·도입하고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아보카도의 무가온 재배와 올리브의 노지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정 품종 선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보카도는 저온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Lula 등 5품종을 대상으로

올해는 정예소득작목으로 적색종 용과가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선행 연구로 '신품종 적색종 용과 인공수분 시간대에 따른 수량 비교' 과제를 수행해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적색종 신품종 용과의 인공수분 시간대별 착과율 조사와 결과지 적정 착과량을 구명해 안정생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내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은 2001년 30ha·77호에서 2016년 42ha·84호, 2019년에는 63.2ha·142호로 증가했다. 아열대과수 주요 작물은 망고, 파파야, 올리브, 바나나, 아보카도, 용과, 패션프루트, 스타프루트이다.

오명협 아열대과수팀장은 "새로운 아열대과수의 도입은 신소득원 창출뿐만 아니라 감귤산업 집중화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며 "기후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묘목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